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순항

전북도, 새만금주행시험장서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사업' 착수

미래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초소형 전기특수차(2020.8.)와 이동식 LNG 충전소(2020.12.) 실증 착수에 이어, 20일 새만금주행시험장에서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사업'을 착수하는 등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중대형 상용차 생산량의 94%를 차지하는 상용차 특화 지역인 전북은 기존의 기계산업에서 미래형·친환경 자동차로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인 경우 상용차를 보다 친환경적인 LNG(액화천연가스) 상용차로 전환하기 위해 이동식 LNG 충전사업(2020.12월)과 LNG 중대

형 상용차 운행실증을 추진한다.

현재 LNG 상용차는 일부 차종이 판매 관련 시장이 형성됐으나, LNG탱크 용량 제한으로 인한 짧은 주행거리와 LNG충전소 보급 미비 등이 시장 확대의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전북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사업 일환으로 'LNG 중대형 상용차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LNG 내압용기 설치에 관한 별도 설치기준이 없어,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차량 설치조건을 국제기준으로 완화하고, 대용량 탱크를 적용한 차량을 개발해 실증을 추진한다.

대용량 LNG 내압용기와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압용기 고정성 시험과 실차 충돌시험 등을 수차례 진행했다.

새만금주행시험장 등에서 차량의 기초 성능평가, 최종적으로 도로 실증

운행을 통해 안정성 검증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전북도는 대용량 LNG 내압용기 설치 시 1회 주행거리를 현행 380km에서 최대 700km까지 약 2배로 향상할 수 있어, 상용차의 주 기능인 물류 수송과 친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보급이 미비한 고정성 충전소 문제에 대응한 LNG 이동식 충전소 구축사업도 진행하고 있어 LNG 상용차 실증 사업과의 상승효과도 기대된다.

전병성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세계 각국의 배기가스 규제와 친환경 정책 강화 등 자동차 산업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합심해 사업 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비대면 설명회

전북도가 2021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설명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20일 진행했다.

시·군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올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6.9억원(5.9%)이 증액돼 27개 사업 125억원이 지원된다.

국비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다문화특성화사업 등 13개 사업이며, 전북도 자체 사업은 글로벌 마을화당 운영,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등 14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사례관리사와 통번역사를 6명

추천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 마련과 양질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중 운영되는 한국어교육 등 다수의 프로그램은 기존의 집합교육, 찾아가는 서비스와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 화상교육, 전화 한국어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를 병행해 다문화가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업 효율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화와 문자를 통한 안부체크 서비스와 전북 이주여성 상담소의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및 경찰, 법률, 의료지원 원스톱 시스템 구축 등 폭력피해에 대한 본격적인 전문 상담을 지원해 다문화가족의 장기정

착을 지원하고, 인권보호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한 다문화 방송 '다정다감'을 올해도 제작·송출하고, 다문화소식지 '사랑들' 발간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사례 등 다문화 인식개선 코너 확대를 통해 다문화 융성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민희 도 대외협력국장은 "올 한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초래하는 사업의 개선안 마련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는 다문화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발굴과 여건 변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민과 함께하는 새만금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전북도가 오는 28일까지 도민과 함께하는 '새만금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단체 등이 새만금 유역 생태계 보전 및 교육·홍보 등 수질보전활동을 통해 새만금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수질보전활동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전북도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

단체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공모대상은 물길탐사 및 생태조사, 수질보전활동, 교육·홍보이다.

세부적으로 ▲생태길 걷기 및 탐사와 수생태계 보전활동 ▲수중 수변 쓰레기 수거 등 수질오염원 제거활동 ▲이동교실 및 학교동아리 등 새만금 수질보전 관련 교육·홍보 활동 등이

공모사업은 전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단체별로 1~2,000만원을 지원받아, 올 한 해 동안 '도민과 함께하는 새만금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는 전북도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공고/고시)에 게재된 공모계획을 참고해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전북도청 새만금수질개선과로 접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전북 위상 빛낸 '이달의 으뜸도정상' 시상

최우수·문화예술과·우수·토지정보과·국제협력과·수산정책과·동물위생시험소 선정

전북도는 2020년 12월중 업무성과가 탁월해 전북의 위상을 빛낸 5개 부서를 선정, '이달의 으뜸도정상'을 시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10대 핵심프로젝트, 공약사업 등 각종 도정 현안을 힘있게 추진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으뜸도정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도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보인 11개 부서가 접수돼 내부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최우수 부서에는 문화예술과가 선정되고, 우수부서에는 토지정보과, 국제협력과, 수산정책과, 동물위생시험소 4개 부서가 선정됐다.



20일 전북도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달의 으뜸도정상 시상식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2020년 12월중 업무성과가 탁월해 전북의 위상을 빛낸 5개 부서를 선정하고 시상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예술과는 중앙부처와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세계사에비엔날레전용관, 문화예술인화관, 웹툰캐릭터 조성 등 국가예산확보 및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북도 대표 문화시설 건립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국형영양 효과음원 플랫폼 구축 등 전북형 뉴딜 성공안착을 위한 협의체 T/F 운영 및 선도사업을 발굴해 2021년 국가예산을 최다 확보했으며(196천7,114억원), 도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위기 속 예술인(단체)에 대한 선제적 처치를 위해 공공 미술프로젝트, 예술인 창작준비금 등 11개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유공 및 세계측지계 변환 우수성과로 국비(77억원)를 확보했으며, 도로명주소 업무유공 대통령 표창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지적불부합지를 재측량, 지적공부 등록을 전산화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했다.

국제협력과는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수용성 증진으로 행안부의 '2020년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우수상을 수상했다. 광역 최초 다정다감 제작·방송(48회), 다문화 소식지 사람들 연 3회 1회당 1만부 잡지발간 배부, 전라일보와 비예산 협력사업으로 외국인 주민의 삶 조영 기획취재 등에 다분

화가족을 참여시켜 도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인식개선에 기여했다.

수산정책과는 해수부의 2021년 어촌뉴딜 공모사업(455억원)에 5건(도 33.3%)이 선정돼 국비(319억원)를 확보, 노후된 어촌·어항의 혁신성장 및 민관협력, 어촌 활력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전국 최초로 수입허용 조건인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해 국내산 삼계탕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한편 이달의 으뜸도정상 선정 부서는 격려금과 최우수 부서 가정과 당 1만부 잡지발간 배부, 전라일보와 비예산 협력사업으로 외국인 주민의 삶 조영 기획취재 등에 다분

/유호상 기자

올해 첫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사전 준비·도와시·군 부단체장 소통 활성화 방안 등 논의

전북도와 시·군은 도 현안사항 논의와 시·군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을 위해 올해 첫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20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와 시·군은 코로나19 백신 도입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시·군별 접종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구성을 협의했다.

또한, 현재 7개 시·군에서 총 13건이 발생한 AI 확산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전담관제 강화, 농장초소 운영 확대, 점검결과 이행 절차 등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전일잔재 전수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군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안내관 설치비 등 청산관련 필요

예산의 추경확보 등 전일잔재 용역 후 신속조치 시행에 대해 시·군과의 협업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생방항·찾아가는 시·군과의 소통 등 도와 시·군 부단체장 소통 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앞으로 월 1회 부단체장 회의는 중앙 및 도 현안 전달 방식에서 시·군 건의사항을 사전에 받고 차기 회의 시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생방항 회의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분기별 1회 정도 시·군 간 연계 및 공동협력, 현안사항 등에 대해 시·군 의견이나 도 지정 방식으로 시·군 권역을 묶어 직접 찾아가는 권역별 소통 간담회를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1월과 7월 정기 인사 후에는

대면회의를 통해 현안도 논의하고, 시·군·정과 연계한 소통 및 교류를 강화하는 등 14개 전체 시·군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안정되고 평안해야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올해 사자성어인 '영정치원(寧靜致遠)'의 의미대로, 도민이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올해 전북도는 건강하고 안전한 전북실현,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환 전북구현 등 9대 역점사업과 11대 핵심프로젝트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 생태명문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으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우석대 원광대 군산대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담**

스피치·긴장해소·리더쉽·웃음코칭

스피치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복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모교학부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김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웃음협회 전북회장
- 전북대학교육원 및 가린, 단재 특강교수
- KIN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연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새롭고 멋진 스피치 노하우' 중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치료(주, 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주, 야간)	익산, 논산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쉽, 스피치지도사(자격증)	군산, 서원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치료 등)(주, 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아)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